

개화기 선교사 게일의 『춘향전』 재번역 이유와 특성: 원전 선택의 관점에서*

최진실
(계명대)

1. 서론

본고는 개화기 한국학의 선구자, 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1863~1937)의 『춘향전』 번역, *The Story of Choonyang* (1913)의 재번역 이유와 특성을 원전 선택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게일의 번역은 당시 호러스 알렌(Horace Newton Allen)(1858~1932)의 번역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나온 재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번역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게일이 『춘향전』을 재번역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는 게일의 번역이 굴사글러(Gürçağlar 2009: 234-235), 코스키넨과 팔로포스키(Koskinen and Paloposki 2010: 296-297)에서 재번역의 특징으로 주창한 ‘다른 해석’과 ‘다른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번역’이었음을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렌 번역과 비교하여 게일 번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원전 선택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그의 재번역 이유가 여성을 높이 평가하는 그의 평소 신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2072).

장한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근대의 전환기는 기존 전통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가치의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국문으로서 『심청전』, 『춘향전』의 이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신호림 2019: 68), 서양인, 일본인들과 같은 외부인들도 기존의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던 시기로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이 출판되는 시점이었다(오윤선 2012: 205; 전상욱 2014: 119). 이러한 근대 한국학의 지평에서 제일의 『춘향전』 번역은 외부자이자 관찰자의 눈으로 시대의 소명을 담아 한국 문학의 정전을 읽은 ‘하나의 이본’으로서 역할과 위상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주로 국문으로서 원전의 내용적 특성과 이본의 차이 규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권순공 1990; 오윤선 2011; 이지영 2016; 전상욱 2014, 2017), 제일 번역 자체에 대한 연구는 놀랍게도 매우 미진했다.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원전과의 비교로 제일 번역의 내용 누락 정도를 진단하거나(이진숙과 이상현 2015), 문학적 특성 측면에서 제일 번역과 알렌 번역의 차이를 젠더 차이로 조명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Lee 2020). 본 연구에서는 제일이 다른 번역가들과 상이한 목적과 방식으로 한국의 열녀 소재 문학을 “동양의 이상(this ideal of the Orient)”(Gale 1913: i, 번역자 서문)으로 인식, 전하고자 했다는 점, 그가 기존의 알렌 번역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원전을 기반으로 『춘향전』 번역을 실행하고자 했던 동기와 특성에 주목한다.

재번역과 관련하여 국내외 번역학계에서는 재번역을 실행하게 하는 원인, 동일한 원전에 대한 재번역을 통해서 번역가가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나타내는지, 번역가의 자가교정(self-revision) 관점에서 재번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김도훈과 심경진 2014; 이상빈 2018; 최은경과 조성은 2022; Alvstad and Assis Rosa 2015; Brownlie 2006; Deane-Cox 2014; Kim 2018). 한편 고전 문학의 재번역과 관련해서는 한문에서 국역으로의 재번역과 난제(이상하 2017; 진재교 2017), 일한 재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재번역 가설을 논의한 연구(박미정 2018), 특정 번역가의 특정 이본을 바탕으로 한 연구(이상빈 2020)가 있다. 특히 이상빈(2020)에서는 마샬 필(Marshall R. Pihl)(1933~1995)의 『홍길동전』 경판본 번역을 분석하는데 필의 초역본과 재출판본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동

일 번역가의 자가교정 관점에서 재번역을 고찰한 의의가 있다. 한편 재번역의 관점에서 다른 판본, 또는 이본을 바탕으로 한 번역의 동기, 번역가와 번역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본고는 게일이 『춘향전』 번역에 착안한 이유가 기독교적 모티브와 유사한 점이 있어 매료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그 원전으로 이해조(1869~1927)의 『옥중화』(1912)를 선택한 이유로 첫째, 여성인 춘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는 점, 둘째, 춘향의 신분을 양반으로 그리는 점에 착안했을 가능성을 본 연구를 통해서 전개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알렌 번역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기에 게일의 재번역 이유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춘향전 이본과 원전의 기독교적 모티브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재번역의 정의와 이유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재번역의 관점에서 알렌과 게일 번역가의 생애와 번역 동기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게일과 알렌의 원전 선택의 관점과 게일의 번역 특성을 논의한다. 5장에서는 본고를 마무리한다.

2. 춘향전 이본 형성과 재번역 이론

2.1 『춘향전』 이본 형성

고소설 『춘향전』은 적층문학적 성격을 띠기에 이본만 하더라도 100여 종에 달한다(김광순 2004: 498).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본 중에서 출판 순서로 보면 『만화본춘향가』(1754)가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 유추된다(김경완 2004: 685-686). 이본 연구는 화소의 출입을 기반으로 신화적 원형성, 판기제도와 열녀기생, 암행어사, 과거제도 등을 검토해서 『춘향전』 이본 계열을 남원고사계, 별춘향전계, 옥중화계로 나누기도 하고(설성경 1980), 판본에 따라 계열별 선후(先後) 문제,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연구도 있다(김석배 1990). 많이 논의되는 판본 중에 경판본(京板本)과 완판본(完板本)이 있는데,¹⁾ 이들은 내용적으

1) 경판본은 조선시대 서울에서 출판된 판본을 뜻하고, 완판본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출판된 판본을 뜻한다.

로나 장수로도 특징이 명확하게 구별된다. 경판본 계열은 35장본을 제외하고 ‘인조조’(仁祖朝)로 서두가 시작되지만 완판본 계열은 ‘숙종조’(肅宗朝)로 시작 되기에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춘향전』의 이본 형성 시기가 적어도 인조때(재위기간 1623~1649)인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춘향전』의 이본이 100여 종에 달하므로 모든 이본을 본고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두 번역가가 참고한 이본, 즉 이해조의 『옥중화』(1912)와 경판본 계열을 4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본 장에서는 『춘향전』 이본 형성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재영 외(1990), 김경완(2004)과 같은 일부 학자들은 『춘향전』 이본의 형성 시기가 한국의 기독교 수용 및 수난 시기와 유사하고 『춘향전』의 다양한 모티브가 기독교적 관념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본고의 두 번역가는 독실한 선교사였기에 이들이 번역의 소재로 선택한 한국 고소설, 『춘향전』에 깊이 매료된 이유 또한 『춘향전』의 박해, 정절 고수 등이 기독교적 모티브와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다소 설득력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논의의 출발점으로 『춘향전』 이본 형성사와 기독교 수용 및 수난사를 비교한 김경완(2004)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본의 개요를 살펴본다.

김경완(2004: 686-690)은 『춘향전』 배경인 17세기 남원에 네덜란드 기독교인이 방문하여 정착한 시점을 기점으로 기독교 수난사와 『춘향전』 이본 형성시기를 설명한다. 1784년 한국 천주교 최초의 세례자인 이승훈(1756~1801)의 세례가 있었고, 그 후 정약용 등 여러 신자들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된 신유박해(1801), 천주교의 2차 박해인 기해박해(1839)가 있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경판본이 만들어진 시기는 기해박해 이후로 전해진다. 그 후 1893년 3월 31일에 기포드와 존스의 집 대문에 ‘야소교배척격문’(耶蘇教排斥激文)이 붙은 사건이 있었고 1900년대 초반 본격적인 선교사들의 유입과 기독교 전파로 1913년 장로회 총회가 개최된다. 계열이 원전으로 선택한 『옥중화』는 1912년에 완성되었다. 『춘향전』 이본의 형성 시기를 개괄하면 1754년 만화본 출간 이후 춘량사 - 옥중지화, 남원고사 - 광한루기, 동양문고본, 경판본 - 옥중화의 순서대로 18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본 형성이 활발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김경완(2004: 699-720)에서는 첫째, 『춘향전』의 여러 모티브가 기독교적 관념과 유사하고 둘째, 『춘향전』 이본 형성 시기와 국내

기독교 전파 및 수난 시기가 맞물려 있다는 점, 셋째, 『춘향전』이 적층문학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당시 신종교로서 기독교의 영향이 작품 구성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자도 『춘향전』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나 고난, 구원자 모티브가 기독교적 관념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어쩌면 독실한 선교사였던 본고의 두 번역가도 그러한 유사점에 매료되어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2.2 재번역의 정의와 이유

굴사글러(2009: 233)는 재번역을 ‘같은 언어로 번역된 작품을 번역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라고 정의한다. 반면 코스키넨과 팔로포스키(2010: 294)는 결과물로서의 번역에 초점을 두면서 재번역을 ‘하나의 원천 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같은 목표 언어로 번역한 두 번째 혹은 그 이후의 번역’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재번역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번역을 전제하며, 같은 원천 언어에 대한 같은 목표 언어로의 번역 행위 또는 그 결과로 정의한다. 한편 기존의 번역과 비교했을 때 이후에 나온 번역본이 수정본인지, 편집본(edition)인지, 재번역인지를 판가름하는 척도는 다소 모호하다. 내용적 수정 정도 또는 차이가 재번역을 판가름하는 척도라면 수정본이나 편집본보다 재번역의 내용적 차이가 많음은 주지의 사실이었으나 본고에서 지칭하는 재번역은 최소의 변경을 포함하며 수정본, 편집본과 따로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재번역의 정의로 ‘하나의 원천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점이다.

많은 경우 재번역은 같은 원천 텍스트를 기반으로, 같은 목표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슬람 코란, 기독교 성경과 같은 종교 번역이 대표적인 예이며 문학 번역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이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단 하나만 존재하는 원천 텍스트의 정전적인 지위 혹은 절대적인 지위, 직역과 의역의 정도가 재번역의 여러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의하는 『춘향전』의 경우, 구전으로 전해진 특성 때문에 이본마다 내용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번역가가 어떤 이본을 원천으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번역본의 특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재번역의 논의는 원전과의 비교로

번역본이 얼마나 달라졌느냐,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의 논의와 별도로 번역가가 어떠한 이본을 원전으로 선택했느냐의 문제가 그들의 번역 성향과 동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된다. 따라서 같은 원천 언어이지만 원천 텍스트가 상이할 경우 재번역은 원천 텍스트의 선정부터 번역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되며 그 정의에 있어서도 ‘하나의 원천 언어’를 대상으로 같은 목표 언어로 번역한다는 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재번역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굴사글러(2009: 234-235)와 코스키넨과 팔로포스키(2010: 296-297)의 논의를 종합하면 재번역은 (i) 번역가가 기존 번역의 존재를 모르거나, (ii) 출판사 간의 소통오류, (iii) 기존 번역의 언어나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는 경우, (iv) 저작권 만료, (v) 상업적 성공, (vi)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 (vii) 상반된 해석을 위해, (viii) 새로운 번역이 특정한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실행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바탕으로 3장에서 게일의 재번역의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3. 두 번역가와 그들의 번역 동기

게일은 스코틀랜드 계열 이민자의 후손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나 토론토 대학 문리학과를 졸업하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1888년 YMCA 토론토 지부의 후원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다. 게일은 선교사로서뿐만 아니라 최초의 한영사전을 편찬하는 등 언어학자, 사전편찬자, 번역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했기에 그의 종적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한국학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게일은 1927년 한국을 떠나 영국에 정착하였고, 1937년 버스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그가 남긴 저술, 번역, 노트, 기고 등은 현재 토론토 대학 토마스피셔 도서관에 24개의 상자에 소장되어 있다.

리차드 러트(Richard Rutt 1972: 1-90)는 게일의 생애를 총 9개의 시기와 특성으로 구별하고 있다. 즉, (i) 스코틀랜드-캐나다 소년(1863~1884), (ii) 선교사 자원봉사자(1884~1888), (iii) 한국에서의 선교 개척자(1888~1889), (iv) 원산(1892~1897), (v) 교육자(1898~1910), (vi) 한국학(1910~1920), (vii) 한국을 위한 문학(1920~1927), (viii) 영국에서의 은퇴(1928~1937), (ix) 학자이자 선

교사이다. 게일은 상기 러트가 구분한 여섯 번째 시기인 한국학(1910~1920)과 일곱 번째 시기인 한국을 위한 문학(1920~1927)의 기간에 주로 한국학과 관련된 저술 및 번역에 집중하였다. 러트(1972: 49)에 따르면 게일은 선교사였지만 종파주의자(sectarian)는 아니었고 그는 매사에 실용주의자인 면모를 유지했다고 보고한다. 게일의 관심사는 오로지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기에(ibid.) 한국과 관련된 저술과 문학에 관심을 가진 것도 어쩌면 필연적이었을 지도 모른다.

일본이 1910년 한일합방을 앞두고 한국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1909년 11월부터 1911년 4월까지 조선고서간행회에서 『대동야승』을 편찬하게 되는데 게일은 특히 이육(1710~?)의 『청파극담』과 임방(1640~1724)의 『천예록』에 관심이 많았다. 이를 번역으로 엮어서 *Korean Folk Tales-Imps, Ghosts, and Fairies*(이하 *Korean Folk Tales*)라는 제목으로 1913년 런던 덴트 앤 선스(Dent & Sons)와 뉴욕 듀튼(Dutton)에서 동시 발간하게 된다. 이를 필두로 게일은 한국학 서적, 한국문학 영역에 본격적으로 집중하여 『춘향전』 번역본 *The Story of Choonyang*을 1913년에 완성, 『팔상록』 번역본 *The Life of the Buddha*를 1915년에 완성, 『심청전』 번역본 *The Story of Sim Chung*을 1919년에 완성한다. 『구운몽』 번역본 *The Cloud Dream of the Nine*은 1925년 런던에서 출간한다. 그 외에도 『홍부전』, 『토생전』 등 한국의 유명한 문학 작품을 상당수 번역하였다. 출간된 *Korean Folk Tales*와 *The Cloud Dream of the Nine*을 제외하고 이들 영역본의 대부분은 미출간 단행본의 형태로 토론토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게일이 선교사이자 한국학자였다면 알렌은 선교사이자 의사, 외교관으로 게일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개인적, 사회적 궤도를 경험했다. 먼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알렌은 1881년 미국 오하이오 대학 신학부를 다녔고, 1883년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 의료선교사의 신분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다가 1884년 주한 미국 공사관 소속 의사로 한국에 오게 된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선교활동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알렌은 주로 의사의 신분으로 활동한다. 1885년 광혜원(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뀐, 세브란스 병원 전신)의 설립을 고종에게 건의하여 설립한 뒤 의사이자 교수로 활동하다가 1887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뒤 1889년 선교사의 신분으로 조선에 재입국한다. 1890년부터는 주한 미

국 공사관 서기로 임명되어 1905년까지 외교관으로 근무한다. 그가 한국에 온 지 약 5년 만에 『춘향전』 번역을 수록한 *Korean Tales*(1889)를 출간했기 때문에 일간에서는 그가 한국어를 영어로 직접 번역했다기보다 번역을 도와준 한국인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오윤선 2012: 209). 그러나 알렌의 *Korean Tales*가 이후 프란시스 카펜터(Frances Carpenter)(1890~1972)와 같은 한국학 저술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가 있음을 보아, 당시 재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윤선(2012: 208)은 알렌의 *Korean Tales*가 카펜터뿐만 아니라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1843~1928)의 저술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이후 역자들이 *Korean Tales*를 참고하여 번역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²⁾.

알렌은 자신의 역자 서문에서 춘향전 번역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한국인인 반(半)야만적이라는 인상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My object in writing this book was to correct the erroneous impressions I have found somewhat prevalent—that the Koreans were a semi-savage people. And believing that the object could be accomplished best in displaying the thought, life, and habits of the people as portrayed in their native lore, I have made these translations, which, while they are so chosen as to cover various phases of life, are not to be considered as especially selected. (Allen 1889, 역자 서문³⁾)

반면 게일의 재번역 이유를 살펴보자. 굴사글러(2009: 234-235)와 코스키넨과 팔로포스키(2010: 296-297)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의 재번역 이유를 논의하면, 먼저 당시 매우 좁았던 재한 서양인 커뮤니티에서 알렌의 번역본이 약 14년 전에 나왔다는 것을 게일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기 논의했던 것처럼 알렌의 춘향전 번역을 수록한 *Korean Tales*는 당시 재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게일의 번역본이 당시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판사와의 소통 오류의 가능성은 없고, 게일의 번역본이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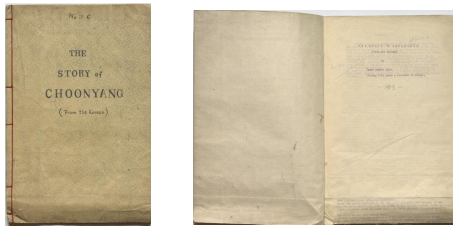
2) 카펜터의 경우 자신의 저서 서두에서 알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알렌의 *Korean Tales*가 자신의 저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고백했다(오윤선 2012: 208 재인용).

3) 본고에서 참고한 *Korean Tales*는 전자책 형식이라 페이지를 제시할 수 없다.

성된 것은 약 100년 전이라 현대의 저작권 개념을 당시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반면 상업적 성공의 측면은 다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게일은 번역서를 일찍이 1913년에 완성하였다. 토론토 대학에 보관된 번역본의 형식을 보면, 타자(type-set) 형식으로 되어 있고 책 표지, 번역가 서문, 완성일 명시 등 단행본의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전체적인 글의 길어도 약 56페이지에 달하는 등 단행본의 여러 요소가 엿보인다. 로스 킹(Ross King 2016: xlili)이 주장하듯 게일이 이러한 단행본 길이의 역서를 타자 형식으로 제작하여 묶어 놓은 것은 그의 출판 의도를 다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게일의 *The Story of Choonyang*은 1913년 완성되었으나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고, 1917년 9월부터 1918년 7월까지 코리아매거진(Korea Magazine, vol I no. 9 - vol II no. 7)에 연재되었다.⁴⁾ 게일이 다른 역서, 즉 *Korean Folk Tales*(1913)나 *The Nine Cloud Dream*(1922)을 뉴욕, 런던 출판사와 함께 출간했고, 『팔상록』 번역인 *The Life of the Buddha*도 출간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아(Choi 2022: 5-6), 『춘향전』 번역본도 단행본으로 출간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게일 유고 소재 *The Story of Choonyang* (1913)의 표지와 내지



스킬렌드(Skillend 1968: 224)는 게일이 조선 호텔에서 세 명의 가수가 공연한 것을 보고 1년 이상 뒤에 번역을 완성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고 전한다⁵⁾. 가수가 공연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아 게일이 먼저 접한 버전은 『춘향전』

-
- 4) 본고에서는 토론토 대학 토마스피셔 도서관에 소장된 게일의 미출간된 단행본 *The Story of Choonyang*(1913)을 주로 분석하되, 저자 소장본의 일부 페이지 누락이 있어 누락된 부분은 코리아매거진에 수록된 게일 번역을 참고한다.
5) 해당 서문은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게일 유고 소재의 단행본 서문은 아니고, 게일이

소설이 아니라 춘향가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스토리에 감명을 받아서 번역을 시작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2장에서 논의한 『춘향전』 스토리와 기독교 모티브와의 연관성 또한 게일의 흥미를 끈 이유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4장에서는 게일이 알렌 번역과 다르게 번역하고자 한 지점, 즉 원전 선택의 관점에서 게일 번역의 특성을 살펴보자.

4. 『춘향전』 번역의 원전 선택과 번역 특성

4.1 이해조의 『옥중화』와 경판본 계열의 특성

게일이 『춘향전』 번역의 원전으로 선택한 이해조의 『옥중화』는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1912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연재된 것으로(권순공과 옥중석 2020: 5), 20세기 초반 『춘향전』의 가장 인기 있었던 버전이라고 전해진다(Yi 2003: 197). 알렌이 참고한 경판본 계열보다 내용적으로 더욱 풍성한 특징(이진숙과 이상현 2015: 263)이 있으며, 이해조가 판소리계 문학에서 당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비속적인 사설을 개작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오윤선 2011: 391)을 감안하면 게일이 자신의 번역관점을 전달하는 데 적합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⁶⁾ 또한 알렌의 번역은 원전과 거의 문장별 대비가 불가능할 정도로 개작한 특성이 있으나 게일의 번역은 원전과 문장별 대비가 가능한 정도로 상대적으로 충실한 번역을 지향하고자 했다(이진숙과 이상현 2015: 263; Skillend 1968: 224). 『옥중화』가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후 8월 17에는 박문서관에서, 8월 27에는 보급서관에서 단행본으로도 출판되었는데 당시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권순공과 옥중석 2020: 5).

이진숙과 이상현(2015: 264)에서는 게일이 대한매일신보보다 단행본을 참고하여 번역했을 것으로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단행본으로 출간된 『옥중화』는

코리아매거진에서 밝힌 것이다(1917: 392).

6) 이러한 게일의 『옥중화』 원저 선택은 리차드 러트의 1974년 『춘향전』 번역에서 정본 텍스트인 완판본 춘향전을 저본으로 선택한 것과 극명하게 구별된다(이진숙과 이상현 2015: 280).

한문을 더 추가해 출판되었는데 그 형식이 게일이 당시 선호했던 형식인 국한문혼용체였다는 것이다(예(1) 참조).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소장된 게일이 참고했던 그의 필사본은 국한문혼용체였기에 이진숙과 이상현의 상기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또한 당시 구전으로 전해진 『춘향전』의 특성상 근대 인쇄술이 도입되기 전까지 필사본의 형식으로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읽을 수 있어도 외국인인 게일이 필사본의 활자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분명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게일이 『춘향전』 번역 단행본을 완성하고 2년 뒤인 1915년 『팔상록』을 번역했을 때도 당시 통용되던 다양한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지 않고, 인쇄판을 저본으로 삼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Choi 2022).

한편 알렌의 번역은 상기 서술하였듯이 경판본 계열 『춘향전』을 참고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각색이 많이 되어 있어서 문장 단위의 대비 분석이 어렵다. 경판본은 김진영 편저 외(1997)에 따르면 현재까지 학계에 소개된 것으로 보자면 길이에 따라 35장본, 30장본, 23장본, 17장본, 16장본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길이가 긴 35장본의 경우 서두 사설이 ‘숙종조’로 시작하는 것이 다른 경판본과 구별되는 특징인데, 다른 경판본은 ‘인조조’로 시작된다. 그런데 사실상 알렌의 번역 서두를 보면 ‘숙종조’나 ‘인조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도 내용적으로 경판본 계열이라고 추정할 뿐 정확히 어떤 저본을 바탕으로 알렌이 번역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 소절에서는 게일 번역의 원전으로 『옥중화』, 알렌 번역이 원전으로 하는 경판본 계열은 길이가 중간 정도 되는 23장본을 기초로 게일의 원전 선택의 관점과 번역 특성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본고도 이진숙과 이상현(2015)에 따라 게일이 참고했을 법한 단행본의 형식을 갖춘 보급서관본 활자본 『옥중화』⁷⁾를 저본으로 분석한다.

7) 해당 저본은 경희대 인문학연구원에서 고전명작 이본총서 시리즈로 제작한 『춘향전 전집』 15(2004)에 수록되어 있다.

4.2 『옥중화』의 내용적 특징과 게일 번역의 특성

4.2.1 서두에서 춘향의 면모와 아름다운 여성성 강조

게일이 선택한 원전 이해조의 『옥중화』는 알렌이 저본으로 선택한 경판본 계열과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서두를 살펴보면 『옥중화』는 춘향의 탄생과 춘향 모의 퇴기였던 과거, 춘향을 임신했을 때 꿈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완관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서두와 비교했을 때, 『옥중화』는 월매(춘향 모)의 ‘창기’ 과거, 자식을 얻고자 한 기도의 장면이 나오지 않고, 바로 춘향이 탄생의 배경과 춘향 모의 꿈으로 서두를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경판본 계열은 이도령의 용모와 기개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떤 소설이든 서두의 내용은 전체 스토리의 배경과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매우 특징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점에서 『옥중화』에서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체제에서 양반인 남성, 이몽룡을 전치시키지(fronting) 않고 춘향과 같은 절대가인이 태어나는 환경의 아름다움, 춘향의 탄생을 서두에 위치시킨 점이 매우 특색있다.

다음 (1)과 (2)에서 『옥중화』와 경판 23장본의 서두를 비교해보자.

(1) 絶對佳人 삼겨날 제 江山精氣 타셔난드 苧羅山下若耶溪에 西施가
鐘出호고 群山萬壑赴荊門에 王昭君이 生長호고 雙角山이 秀麗호야 綠
珠가 삼것스며 錦江滑膩峨嵋秀에 薛濤文君 幻出이라 湖南左道 南原府
는 東으로 智異山, 西으로 赤城江 山水精新 어리어서 春香이가 삼겨잇
다 春香母 退妓로서 삼십이 넘은 後에 春香을 처음 빌 제 꿈 가온디 잇
던 仙女, 李花挑花 두가지를 兩손에 갈나쥐고 하늘노 느려와서 桃花를
니여주며 이 꽃을 잘 갖구어 李花接을 붓첫스면 오는 行樂 조호리르 李
花 갖드 傳할 곳이 時刻이 急호기로 惻惻히 써나노르 (『옥중화』, 김진영
외 편저 2004: 11)

(2) 춘향전 권지단

화설 아조 인도도 씨의 전나도 남원부스 니등이 혼 아달을 두어스니 명은
령이라 년광이 십륙의 관옥의 괴상과 두목지 풍치와 니빅의 문장을 겸호
어스니 칭찬 아니 리 업더라 칩방의 잇서 신성지여에 학문을 힘쓰더니 니
씨는 방춘화류오시절이라 초목군심지물이 기유이즈학호야 너구리 넛손즈
보고 돕집이 순산호고 면산의 불탄 잔디 밤비에 속넙노고 진쳐스 오류문

은 초록장 드리온 듯 뒷동산 녹음 중의 피소리 환우호고 광풍의 놀는 봉 접 화총을 노동호고 너즈는 상춘이라 쇼년과부 시벽달 보고 보썸썸 씨러 라 춘흥을 못 너기여 화류초로 방즈 불너 분부호되 네 고을 구경처가 어 디어디 조흔고 방지 엇즈오디 관동팔경과 히쥬 미월당 진쥬 축석누 평향 부벽누 성천 강선누 황쥬 월파쌍성 해라 호오되 절승호 경기는 남원 광호 누 경치를 짜를 길 업삼기로 팔도의 유명호와 일컷기를 쇼강남이라 호느 이다 (경관 23장본, 김진영 외 편저 1997: 83)

(1)은 게일이 참고한 저본 『옥중화』의 서두로 춘향의 절세가인의 면모, 춘향 모의 되기 과거의 약술, 춘향 모가 임신했을 때 꿈 꾸에 대한 서술로 여성 춘향의 남다른 묘사되어 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첫 줄에 절세가인(絶對佳人)이 태어날 때 강과 산의 정기를 타고난다는 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말기 저라산(苧羅山)에서 출생한 중국 4대 미인인 서시(西施), 또 다른 중국 4대 미인인 왕소군(王昭君), 당나라 여류시인이자 기생인 설도(薛濤), 서한 시대 여류시인 탁문군(卓文君)과 춘향을 비교하고 있는 점이다. 반면 (2)는 알렌의 원전 계열인 경판본 계열 23장본으로 이도령의 남다른 외모, 학식, 사람들의 칭찬, 방자에게 구경처를 소개해달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비록 남성 중심 체제였던 당대 사회였어도 주인공인 춘향을 서두에 소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일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여성 춘향을 서두부터 강조하는 『옥중화』의 내용적 면모가 여성의 훌륭함을 높이 평가하는 게일의 평소 신념과 맞닿아 있었다고 사료된다.

실제로 게일의 번역을 보면 서두 첫 소절에 대해서 각주로 설명하면서 종이를 덧대어 해당 페이지를 확장한 흔적이 있다. 게일이 이들 중국 고대 미녀, 시인을 소개한 방식도 매우 흥미로운데 다음 게일의 각주 번역을 보자(이탤릭체는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3) 1.⁸⁾ Sosee, who lived about 450 B.C., was born of humble parents, but by her beauty advanced step by step till she gained complete control of the Empire, and finally wrought its ruin. She is *the ne plus ultra* of

8) 예(3)의 1, 2, 3, 4는 게일 번역에서 게일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번호로 본고에서도 그대로 두기로 한다.

beautiful Chinese woman.

2. Wang sogun. This *marvellous woman* by her beauty brought on a war between *the fierce barbarian Huns* of the north and China Proper in 33 B.C. She was finally captured and carried away, but rather than yield herself to her savage conqueror, she plunged into the Amur River and was drowned. Her tomb on the bank is said to be marked by undying verdure. The history of Wang sogun forms the basis of drama translated by Sir John Davis and entitled the "Sorrows of Han".

3. Soldo. A famous woman of China who lived about 900 A.D. Excelling as a wit and verse writer, her name was given by her admirers to the paper on which the productions of her pen were inscribed, till at last it became a synonym for superfine notepaper.

4. Tak Mugun. A Chinese lady of the 2nd century B.C. famed in verse and story and associated with the charms and delights of sweet music.

(Gale 1913: 1)

상기 예(3)을 보면 서시, 왕소군과 같은 중국의 여성들을 설명하면서 게일이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엿볼 수 있다. 서시를 ‘아름다운 중국 여성의 완벽한 예(the ne plus ultra of beautiful woman)’라고 한 점이나 왕소군을 ‘아름다움으로 볼 때 경탄할 만한 여성(this marvellous woman by her beauty)’이라고 한 점은 그 뒤에 바로 나오는 훈족을 설명하면서 ‘사나운 야만족(the fierce barbarian)’이라고 설명한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 즉, 게일은 원문에서 소개된 중국의 아름다움이나 문학적 소양으로 대단한 능력을 지녔던 여성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게일이 토론토 대학에 남긴 ‘Korea’s Noted Women’이라는 노트를 보면 서구에서 존경받는 여성이 있듯이 한국에서도 유명한 여성들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을 보아 평소 한국에서 존경하는 여성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4.2.2 양반의 서녀로서 춘향의 신분과 번역에서의 월매 신분 변화

정하영(2005: 71)에 따르면 춘향의 신분은 근원설화에서 후대의 완관계로 갈수록 신분 상승의 이동 시기가 앞당겨진다. <만화본>과 같은 초기의 이본에 서는 작품 말미에서 춘향이 기생의 신분을 벗고 정렬부인의 교지를 받지만 완

판 같은 후기의 이본에서는 처음 출생부터 양반의 서녀로 춘향이 탄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춘향전』이 ‘성장의 문예’(정하영 2005: 72)라고 하는 점이 신분 이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계열은 후기 이본의 특성을 지닌 『옥중화』를 원전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며, 후기 이본인 완판 84장본과 비교할 때도 퇴기로서 춘향 모의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서술이 없는 『옥중화』를 선택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아래 <표 1>은 근원설화부터 완판 계열까지 춘향 부모의 신분과 춘향의 신분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계열별 춘향의 신분 이동사(정하영 2005: 71)

	근원설화	만화본	경판계	신재효본	완판
부	-	-	봉사의 친구	성천총	성참판
모	기생	기생	기생	퇴기	퇴기
춘향	기생 추박 원사	기생 미인 기안에서 삭제 정렬부인	기생 미인 대비정속 정렬부인	여염처녀 (양반 서녀) 미인 대비정속	양반서녀 미인 정렬부인

위의 표를 보면 춘향의 작품 내에서의 신분 변화와 이본 간 신분 변화를 알 수 있는데 후기의 이본에 올수록 신분 상승 시기가 빨라지고, 완판계열에서는 아예 양반 서녀로 태어난다. 『옥중화』에서는 춘향이 비록 퇴기의 자식이지만 ‘근본있는’ 양반의 자식임을 강조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4) 妓生의 子息이나 根本이 있는 故로 七歲부터 글ᄇ라쳐 日就月將 ㅎ는 才操 測量할 수 업고 (『옥중화』, 김진영 외 편저 2004: 12)

(5) 本邑妓生 月梅 딸 春香이로소이다 [...] 잔말 말고 어서 오란다고 즉시 불러오너라 房子 엿자오더 春香의 雪膚花容 南方에 有名 ㅎ야 監使 兵使 牧府使 郡守 縣監 官長들이 無數히 보라 ㅎ되 綠珠의 色과 薛濤의 文章과 木蘭의 禮節을 胸中에 품엇스니 萬古女中君子옴고 어미는 妓生이나 根本이 있는 故로 任意로 呼來치 못ㅎ는니다 道令님 허허 웃고 네 말이 無識 ㅎ다 荊山白玉과 麗水黃金이 物各有主라 任者가 各各 잇는니라 잔말 말고 불너오너라 (『옥중화』, 김진영 외 편저 2004: 17)

(6) 본읍 기성월미 딸 춘향이로쇼이다 도령 말이 얼스 조홀시고 제 분이 창녀면 한번 구경 못할쇼냐 방즈야 네 가 불너오라 (경관 23장본, 김진영 외 편저 1997: 85)

(4)는 『옥중화』 서두의 일부로 춘향의 신분을 ‘기생의 자식이나 근본이 있는 고로’ 7세부터 글을 배웠다며 춘향의 양반 태생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알렌이 참고한 경관 계열, 즉 본고의 분석대상인 23장본에서는 이러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관 23장본은 이몽룡의 출생과 기개를 서두에 위치시키고 이몽룡에 대한 서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춘향은 이몽룡이 광한루에 가서 만나는 장면부터 서술된다. 따라서 (4)에 해당되는 번역은 계열의 번역에만 나타나고, 알렌의 번역에서는 해당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의 계열 번역을 보자.

(4a) Although the daughter of a dancing-girl, yet because her father was of the gentry class, she was taught Chinese from her seventh year. In this she greatly excelled, as also in stitching, embroidery and in music. (Gale 1913: 1)

(4)의 원문에서 기생의 딸이라는 점, 그러나 아버지가 양반 신분이므로 글을 7세부터 배워 일취월장했다는 점이 계열의 번역에서 꽤 충실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춘향의 양반 태생 신분이 계열 번역에서는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재현된다.

한편 (5)와 (6)은 이몽룡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보고 반하여 방자보고 불러 오라고 하는 장면인데 춘향의 신분에 대한 『옥중화』와 경관 23장본의 묘사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5)와 (6) 모두 춘향을 ‘본읍기생 월매 딸’라고 묘사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5)에서는 방자가 춘향 외모의 아름다움과 문장력, 예절을 갖추는 자세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감사, 병사, 목부사, 군수, 현감, 관장들이 무수히 보고자 했음을 설명한다. 그리곤 어머니는 기생이지만 근본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부르지 못한다며 춘향의 양반 태생 신분을 강조한다. 반면 (6)은 이러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고, 이몽룡이 춘향을 ‘제 분이 창녀면 한번 구경 못할쇼냐’라며, ‘창녀’로 지칭한다. 이렇게 『옥중화』에서 춘향을 ‘근본 있는 태생’으로 묘

사하는 것과 경관 23장본의 ‘창녀’로 묘사하는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춘향의 신분예 대한 두 번역가의 태도도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다음의 번역을 보자.

(5a) That's a daughter of Moon Plum, a former dancing-girl of this country. She is called Choonyang". [...] (Gale 1913: 3)
 Not another word, Boy, but go and call her at once." The Boy replied, "Choonyang, Your Excellency, is known through all this south country. From Governor to pettiest magistrate, everyone has tried to win her. The beauty and fidelity of China's most famous women surely never surpassed her. She is in heart a princess, though born of a dancing-girl. Her mother's family, too, was originally of gentle origin. You cannot call her thus." The Young Master laughed, "You ignoramus, you, what do you mean? Every bit of marble from the Hong Mountain, and all the yellow gold from the waters of the Yaw, have each their master and owner. Go and call her." (*Korea Magazine 1917*, vol. I (9), 398)⁹⁾

(6a) "She is Uhl Mahs' daughter, a *gee sang* (public dancing girl) of this city; her name is Chun Yang Ye"—fragrant spring. "*I yah!* superb; I can see her then, and have her sing and dance for me," exclaimed Toh Ryung. "Go and call her at once, you slave."¹⁰⁾ (Allen 1889)

(5a)에서 밑줄 친 부분은 게일이 번역에서 추가한 것이다. 즉 원문에는 춘향이 양반 태생으로 이도령이 오라고 해도 막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으나, 게일의 번역에 보면 춘향의 어머니, 월매의 신분도 양반 신분으로 격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게일은 기생 자녀인 춘향뿐만 아니라 월매도 양반 신분으로 묘사하여 이도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로 격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춘향전』의 기생 자녀 출신 혹은 퇴기 출신인 두 여성의 인격을 보다 존중하고자 하는 게일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준

9) 저자가 소장하고 있는 게일 번역본 4쪽의 전체 누락으로 코리아매거진에 실린 게일의 번역을 참고하였다.

10) 이탤릭체는 원문을 따른 것이다.

다. 한편 (6a)의 알렌 번역을 보면 경관 23장본의 ‘제 본이 창녀면 한번 구경 못할소냐’처럼 춘향의 출신이 기생 딸이라 양반 이도령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된다는 것은 강조되어 있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양반 출신이라는 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게일이 기생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가졌길래 월매의 신분을 양반 태생으로 격상시켜 춘향과 월매 두 여성 모두 남성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임을 번역에서 강조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먼저 게일 자신이 기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당시 사회 통념상 기생의 후손이면 자녀도 기생이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사였던 게일의 보수적인 신념상 천민 출신으로만 그리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게일이 기생에 대해서 평소 다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기생의 후손인 춘향이나 기생 출신인 월매의 인격을 존중하고자 번역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그리고자 했을 수 있다. 필자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론토 대학에 소장된 ‘The Ki-saing (Dancing Girl)’이라는 게일의 노트를 보면 게일은 기생을 “feeling that she is a very necessary and important part of what the East calls society”라고 묘사한다. 즉, 실제로는 당시 천민 계급이지만 기죽지 않고 스스로 사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매우 자신감 있는 여성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기생의 신분에 대해서 “If we reckon up her ancestry according to the books and records on hand she is just a thousand years old. She probably comes down from some of the best classes of the day in which her first fathers lived.”¹¹⁾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기생이 진짜 ‘some of the best classes’인 양반 출신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같은 노트의 후반부를 보면 그 이유가 짐작되는데 보통 양반 출신의 관료들이 외부에 출장을 갈 때 부인이 함께 못 갈 경우 기생을 데리고 출장을 갔기 때문에 그 후손도 알고 보면 양반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게일의 여성과 기생에 대한 시각은 춘향을 중심으로 서술되며 춘향이 양반 서녀로 묘사되는 『옥중화』의 내용적 성격과 유사하다. 따라서 게일의 여성과 기생에 대한 평소 관점이 원전 선택과 연관성이

11) 원문을 보면 ‘lified’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lived’의 오류인 듯하다. 현대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lived’로 필자가 고친 것이다.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계일의 『춘향전』 번역, *The Story of Choonyang* (1913)을 원전 선택의 관점에서 재번역 이유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당시 제한 선교사 사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알렌의 번역이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번역을 하게 된 재번역의 이유를 두 번역가의 생애와 번역 동기를 검토하면서 논의하였고, 계일이 알렌과는 다른 해석, 다른 목적을 위해 이해조의 『옥중화』를 저본으로 삼아 재번역한 방식을 논의하였다.

계일이 자신의 번역을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새로운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일이 알렌과 달리 이해조의 『옥중화』를 저본으로 삼았던 것은 그의 여성에 대한 관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옥중화』는 알렌이 원전으로 참고한 경판본 계열과 달리 여성 주인공인 춘향에 대한 서술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는 당시 남성 중심 사회체제에서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여성과 여성상에 대한 글을 남긴 것을 보면 계일은 평소 한국의 여성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옥중화』의 여성 중심 관점과 서술방식이 계일이 해당 원전을 선택하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된 것 같다.

둘째, 계일은 양반 서녀로서의 춘향의 신분에 주목하였다. 정하영(2005)에 따르면 후기 이본 계열로 갈수록 춘향의 양반 신분 이동 시기가 빨라지거나 아예 양반 서녀로 태어난다고 서술하는데, 『옥중화』의 경우 춘향이 처음부터 양반 서녀로 태어나며 계일은 번역에서 이러한 춘향의 양반 신분과 고결한 인격을 강조한다.

셋째, 계일은 춘향뿐만 아니라 춘향 모 율매도 양반 출신으로 서술한다. 이는 원전 『옥중화』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으로 계일이 번역에서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퇴기이지만 기생 신분을 양반 출신으로 묘사한 데에는 계일이 남긴 기생에 대한 노트로 미루어보아, ‘기생이 알고 보면 양반 출신이다’라는 계일의 평소 신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약 100개가 넘는 이본 중에서 춘향을

양반 서녀로 묘사한 『옥중화』를 저본으로 삼은 것과 춘향 모까지도 본인 번역에서 양반으로 묘사한 것은 자신의 평소 신념과 맞닿아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알렌의 번역에서는 춘향의 양반 출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으로 살펴본 게일 번역의 특성은 원전 선택부터 알렌 번역과 큰 차이가 있다. 게일은 독실한 선교사로서 선교지의 사람들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 문화의 긍정적 면모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했던 한국학자였다. 당시 외국인으로서 유교적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당시의 사회체제와 통념과 구분되는 것으로 한국 여성을 보다 주체적이고 독립적, 자신감 있는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 이러한 본 논문의 결과는 게일이 한국 여성을 비롯한 한국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선행연구(이상란 1993; Rutt 1972)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게일이 다른 번역가와 구별되는 자신의 신념과 번역 이상(ideal)을 드러내기 위해 재번역한 방식을 규명한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번역가의 재번역 특성을 원전 선택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서로 다른 번역가의 번역을 면밀하게 비교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계속 연구의 일부로 지면의 제약상 많은 데이터를 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는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김진영 외 편저 (1997) 「경관 23장본 춘향전」, 『춘향전 전집』 4권, 서울: 박이정, 81-112.
- 김진영 외 편저 (2004) 「옥중화」, 『춘향전 전집』 15권, 서울: 박이정, 9-140.
- Allen, Horace N. (1889) 'The Tale of Chunhyang', in Horace N. Allen (ed.) *Korean Tales*, New York and London: Nickerbocker Press, <https://www.gutenberg.org/files/55539/55539-h/55539-h.htm>.
- Gale, James S. (1913) *The Story of Choonyang*,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oronto.

- Gale, James S. (1917) 'Choon Yang', *Korea Magazine* 1(9): 393-403.
- Gale, James S. (n.d.) *The Ki-saing (Dancing Girl)*, Note, University of Toronto.
- Gale, James S. (n.d.) *Korea's Noted Women*, Note, University of Toronto.

(2) 2차 자료

- 권순궁 (1990) 「판소리 개작소설 『옥중화』의 근대성」, 『반교어문연구』 2: 246-251.
- 권순궁, 옥중석 (2020) 「『춘향전』의 외국어 번역양상과 그 의미」, 『지역문화연구』 19: 3-29.
- 김경완 (2004) 「춘향전의 기독교적 조명」, 설성경 편저 『춘향전 연구와 과제와 방향』, 서울: 국학자료원, 681-720.
- 김광순 (2004) 「춘향전 연구의 경향별 검토와 쟁점」, 설성경 편저, 『춘향전 연구와 과제와 방향』, 서울: 국학자료원, 485-515.
- 김도훈, 심경진 (2014) 「필 벽의 <대지> 재번역 양상에 대한 소고」, 『통번역학 연구』 18(2): 1-14.
- 김석배 (1990) 「춘향전의 이본 생성과 변모」, 『국어교육연구』 22: 145-170.
- 박미정 (2018) 「고전문학 재번역과 재번역가설: 太宰治 『人間失格』 일한재번역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9(1): 33-60.
- 설성경 (1980) 『춘향전의 계통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재영, 권영진, 조규익, 한승욱 (1990) 『기독교와 한국문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신호림 (2019) 「근대전환기 이후 용궁의 방향: <심청전>을 중심으로」, 『고전과 해석』 27: 63-90.
- 오윤선 (2011) 「『옥중화』를 통해 본 이해조 개작 판소리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24: 381-413.
- 오윤선 (2012) 「근대초기 한국설화 영역자들의 번역태도 연구 - Allen, Griffis, Hulbert, Carpenter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3: 205-231.
- 이상란 (1993) 「게일과 한국문학-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 문학적 의미」, 『캐나다 논총』 1: 123-137.

- 이상빈 (2018) 「재번역 및 자가교정(self-revision) 분석을 통한 한국문학번역 방향 고찰하기」, 『번역학연구』 19(4): 121-147.
- 이상빈 (2020) 「마살 필의 <홍길동전> 경판본 번역 분석」, 『통번역학연구』 24(4): 97-124.
- 이상하 (2017) 「고전국역의 傳承과 재번역의 과제」, 『民族文化』 50: 143-169.
- 이지영 (2016) 「『옥중화』를 통해 본 20세기 초 ‘춘향’ 형상의 변화」,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32: 37-63.
- 이진숙, 이상현 (2015) 「제일의 『옥중화』 번역의 원리와 그 지향점 - J. S. Gale, “Choon Yang” (The Korea Magazine 1917.9-1918.8)에 누락·변용된 『옥중화』 속 언어표현의 의미」, 『비교문학』 65: 257-292.
- 전상욱 (2014) 「『춘향전』 초기 번역본의 변모 양상과 의미-내부와 외부의 시각 차이」, 『고소설연구』 37: 119-147.
- 전상욱 (2017) 「경판 20장본(송동본)을 중심으로 살펴본 방각본 <심청전>의 변모 양상」, 『관소리연구』 44: 159-200.
- 정하영 (2005) 『춘향전의 탐구』, 파주: 집문당.
- 진재교 (2017) 「고전 번역의 난제와 재번역」, 『民族文化』 50: 105-141.
- 최은경, 조성은 (2022) 「재번역 양상 및 요인 연구-『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나타난 문화특정 어휘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4(1): 331-352.
- Alvstad, Cecilia and Alexandra Assis Rosa (2015) ‘Voice in Retranslation: An Overview and Some Trends’, *Target* 27(1): 3-24.
- Brownlie, Siobhan (2006) ‘Narrative Theory and Retranslation Theory’,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7(2): 145-170.
- Choi, Jinsil (2022) ‘What Happened to Heaven and Buddha?: James Scarth Gale’s Translation Stylistics’, *Acta Koreana* 24(2): 1-30.
- Deane-Cox, Sharon (2014) *Retranslation: Translation, Literature and Reinterpretation*, London: Bloomsbury.
- Gürçağlar, Şehnaz T. (2009) ‘Retranslation’,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second edition, London: Routledge, 233-235.
- Kim, Kyung Hye (2018) ‘Retranslation as a Socially Engaged Activity: The

- Case of *The Rape of Nanking*', *Perspectives* 26(3): 391-404.
- King, Ross (2016) 'Further Contextualizing the Translations of James Scarth Gale', in Ross King and Si Nae Park (eds) *Score One for the Dancing Girl and Other Selections from Kimun ch'onghwa*,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xxxvii-lix.
- Koskinen, Kaisa and Outi Paloposki (2010) 'Retranslation', in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1), Amsterdam: John Benjamins, 294-298.
- Lee, Janet Y. (2020) "'The Tale of Chunhyang' as Translated by Western Missionaries', *Korea Journal* 60(1): 179-206.
- Rutt, Richard (1972)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Korean People*, Seoul: Royal Asiatic Society.
- Skillend, William E. (1968) 古代小説 Kodae sosö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Surrey: The Gresham Press.
- Yi, Taejin (2003) 'A Historical Reading of the Tale of Ch'unhyang',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16: 193-208.

[Abstract]

**James Scarth Gale's Retranslation of *The Story of Choonyang*:
A Note on His Source Text**

Jinsil Choi
(Keimyung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motiv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nadian missionary translator James Scarth Gale's (1863-1937) retranslation of *The Story of Choonyang* in 1913, focusing on his source text selection. Unlike Horace Newton Allen's (1858-1932) first translation in 1889, allegedly a highly influential translation at the time, Gale chose Yi Haejo's *Okjoonghwa* as his source text. Based on Gale's personal trajectory and characteristics of his source text and translation, this paper explores motives of his retranslation, as to why Gale chose *Okjoonghwa* and how his perspectives and attitudes are represented in translation. I argue that Gale chose *Okjoonghwa* because the story centered on a heroine, Choonyang, unlike Allen's source, and described *Choonyang* as a noble class, *yangban*. I also argue that the way in which Gale formulates the translation is in line with his favorable attitude toward Korean women and a 'dancing girl', *gisaeng*.

Keywords: Allen, Gale, *Okjoonghwa*, retranslation, *The Story of Choonyang*

주제어: 알렌, 게일, 옥중화, 재번역, 춘향전

최진실(<https://orcid.org/0000-0003-3009-9550>)

계명대학교 타블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diane45@kmu.ac.kr

관심분야: 한국문학 번역, 코퍼스 번역학, 영상번역

논문투고: 2022년 8월 3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8월 26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2년 9월 18일